



# 자기소개서

## 지원자 인적 사항

수험번호 : \_\_\_\_\_ 전형구분 : \_\_\_\_\_ 일반전형  특별전형

성명 : 채성원 서명(또는 날인) : \_\_\_\_\_

## 확인 서약

- 본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귀교가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 기재금지사항 기재, 기타 부적절한 기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결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 및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기재금지사항

- 본인의 성명, 출신학교(유추가능 정보 포함)를 비롯하여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출신학교(유추가능 정보 포함)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 할 수 없습니다.
- 부모·친인척의 직업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것도 기재할 수 없고, 직종의 추상적인 기재(사업,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회사원 등)도 금지됩니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광의적 직종명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과정에서 결격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입학 후 학사 관련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 서약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

##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다음 (1)~(3)을 합하여 총 3,000자 이내)

- (1) 학부에서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① 전체 이수 학점 중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양 등의 구분에 따른 학점 수, ②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선택한 기준과 이유, ③ 재수강을 한 경우 그 과목의 수와 이유를 포함) # 888자

공학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자유를 확장하고자 하는 인류의 상상이 기술로 응축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공학의 본질을 사회 구조 변화에 선행하는 기술 혁신의 거시적 이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산업공학을 심화전공하여 총 143학점 중 전공 80학점, 교양 63학점을 이수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과 인텔리전스>, <경쟁시스템분석> 등 석박사통합 교과목을 주도적으로 수강하며 기술 변화의 이면을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공학도로서 '더 나은 세상'의 외연을 끊임없이 재정의했습니다.

2020년 정형외과 대수술로 4개월간 입원이 불가피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사 운영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제약으로 총 6과목을 재수강해야 했지만, 배움을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아 휴학이나 초과학기 없이 학업과 완치를 동시에 성취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인간공학> 교재의 부록에 짧게 수록된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 소외 및 비판' 조차 깊이 고민하며 학문을 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형평·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로 학문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정치철학>, <법과 민주주의> 등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심화 교과목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기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때로는 기존 질서와 긴장 관계를 이루는지 성찰했습니다. 특히 훨체 어에 앉아 정치사상과 법철학 원서를 반복 탐독하며 낯선 개념과 사조에 천착하고, 사상적 흐름을 따라가며 구조화한 경험은 깊은 사유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전공 교과목을 중심으로 고급 과목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며, '더 나은 세상'의 정의와 외연을 거듭 탐색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더 깊이 이어가기 위해, 학부에서 다져온 사유의 기반 위에 공학 전문성을 심화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 (2) 학부에서 수업 외에 주도적으로 수행한 학습과 연구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 622자

2021년 말,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메타버스 산업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과 달리 학계에서는 가상융합 산업의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았고, 핵심 기술군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실 인턴 과정 중 습득한 자연어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대량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상융합 산업의 실체와 유망 기술을 군집화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market-pull 요인으로 주목받은 산업을, technology-push 관점에서 핵심 기술군을 체계화하며 향후 산업 진흥의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 구조와 수요·공급 간의 괴리까지 해석하여 차별화된 의의를 도출했고, 해당 연구를 국내 금융권 리서치 공모전에 제출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이공계 참가팀의 팀장으로 입상했습니다.

이 경험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연어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미했지만, 공학적 도구로 스스로 정의한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산업적 인사이트로 구체화해낸 과정은 기술을 통해 사회를 읽어낸 가장 밀도 있는 학문적 경험이었습니다.

- (3) 그 외 대학 입학 이후에 어떠한 경험(예: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또는 갈등 조정 경험,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킨 경험, 대학 졸업 후 연구 경험 또는 1년 이상 직장 등 사회활동 경력)을 하였습니까? # 1490자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을 계기로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 저는 자연어처리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의 흐름에 곧바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NeurIPS, ACL 등 세계적 AI 학회에 논문을 다수 게재하며 국제적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 AI 산업 규율 입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ICT연구센터사업 자문 및 초청 강연 등 대외 활동을 이어오며 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급망이 글로벌 빅테크에 집중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단순한 기술 창조보다 응용과 재해석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2023년에는 <AI와 법> 강의 조교로 활동하면서, 현직 변호사와의 대화를 계기로 법조계 역시 기술 기반 혁신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학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1년여간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최고기술책임자로서 전 사업 영역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경험은 뛰어난 기술만으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이해와 기대치가 서로 다른 개발자·사업자·투자자 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기술 적용의 본질적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기술을 사회적 언어로 번역해내는 역할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AI센터에 합류한 뒤, 1년 넘게 법조계 실무 현장에서 리걸테크 연구개발과 기술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최신 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넘어, AI 기반 환경 속에서 법조인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근본적 물음을 중심에 두고, 전사적 AI 프로젝트의 1차 파일럿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사무소 차원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흐름을 분석해 요구 사항을 식별하며, 주요 실무 그룹별 AI 도입 방향과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기여해왔습니다. 저는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키텍처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며, 반복적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법률 실무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AI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사적 AI 교육을 위한 내부 전문가 특강을 수차례 맡아 진행했습니다. 또한 소송·컴플라이언스 등 법률 실무와, 규제·거버넌스 등 제도적 영역과 연관 지어, AI가 법조계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쟁점을 야기하는지를 설명해왔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자문을 통해 김앤장에서 "AI"를 논할 때 제 의견이 주요하게 참고될 만큼 내부적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약 제가 법조인의 자격까지 갖춘다면 기술과 법의 언어를 더욱 자유롭게 넘나들며 깊이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2. 대학 입학 이후에 공익을 위해 기울인 노력(예: 봉사활동)을 기술하시오. (동기-과정-결과-후속 활동을 포함하여 1,000자 이내) # 1000자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사회 구조와 인간의 가치관 및 행동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곧 현대 사회의 공익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대학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공익적 방향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학부생들이 겪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능형 강좌 추천 시

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모델이 대중화되기 전, 직접 강의계획서를 크롤링·전처리하고 doc2vec 기반으로 구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역시 공학도로서 인문·사회과학대학 전공 강의를 수강하려 할 때 소속 단과대학을 벗어나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어려움을 체감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후배 간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학우들이 공통적으로 겪던 통증(痛點, pain point)을 반영한 서비스가 되었고, 학내 커뮤니티 공개 이후 스크랩 668회, 공감 195회를 기록하며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학내 전체의 공익적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 격차가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코로나19 시기 한부모 가정 아동 대상 비대면 교육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 중이던 2020년 여름, 낮에는 재활과 학업에 전념하고 밤에는 병원 측의 협조를 얻어 빈 병실에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예정된 4개월을 넘어 2개월을 추가 연장하며 책임을 다한 끝에 복지기관의 추천으로 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재활을 마치고 두 다리로 다시 서서 아이들과 대면 수업을 마무리하던 순간, 서로를 향한 응원이 오가던 그 장면은 지금도 제 삶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법조인이 된다면, 저는 그 시점에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공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학도이자 법조인으로서의 이원적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공익을 제 삶의 중심 가치로 삼아 실천하겠습니다.

### 3. 지원 동기를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 1000자

저는 공학도이자 창업가, AI 전문가이자 기술 진보가 불러온 사회적 문제에 천착해온 연구자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은 파편화된 이력의 나열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사회 속에서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학문과 현실을 함께 마주해온 궤적을 보여줍니다. 학내 스타트업 공동 창업, 국회의 AI 기본법 입법과 정책 지원, 그리고 현재 법률사무소에서의 실무 경험에 이르기까지, 저는 기술을 구현하는 사람에서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차원을 넘어, 규범과 제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공학도의 배경을 지닌 제가 법률사무소라는 다소 이질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도, 기업들과 함께 기술과 규제의 접점을 모색할 때 신산업 분야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소통하며 융복합적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법조계·규제 당국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가교 역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술과 법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간극을 좁히는 사람, 기술과 제도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며 사회에 신뢰를 연결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리걸테크 연구개발, AI 규제와 거버넌스 설계, 법률 산업에서의 기술 자문에 이르기까지 축적해온 경험은 법학적 사고 체계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일깨워주었습니다.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 가능성이 사회 전체에 정당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석하고 조율할 기준, 그리고 이를 실제 산업에 적용할 법조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술이라는 언어를 누구보다 익숙하게 구사해왔지만, 이제는 그 언어를 사회적 합의 속에서 구조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언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귀교에서 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깊이 성찰하며, 책임 있는 해석자이자 조율자로 성장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4. 그 외에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예: 자신이 학생 구성의 다양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 지원서에 입력한 특이사항에 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 1000자

\* 이 항목은 선택형 항목이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좋습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선구적인 실무 선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아래 두 경험은 기술과 규범을 입체적으로 연결해온 저만의 문제의식과 실행력을 잘 보여줍니다.

### 1. AI 규제 및 거버넌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워킹그룹에는 사내 유일한 비법조인으로 참여하여, 안전성 확보의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AI 거버넌스 내재화 프로젝트에도 다수 참여하며, 기술적 구조와 법적 책임 체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설계해왔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법제화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내부 체계 정비에 이르기까지, AI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탐색해왔습니다.

### 2. AI 소송 기술 검토

심층적인 기술 이해가 법률 대응의 전제가 된 국내 최초의 생성형 AI 법률 분쟁에서, 저는 기술 자문을 넘어 소송 전략의 구조를 설계하며 독보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사건에서, 수임 제안서 작성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고 측 주장의 핵심 기술적 오류를 식별하고, 변호사·변리사들과 협업해 쟁점별 대응 법리를 정교하게 구조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초기 기술 검토를 전담하여,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저작권 법상 ‘복제’ 성립 요건과 연결하였고, 서비스 단계에서는 모델 추론 결과의 재현 가능성과 ‘비표현적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약관법상 계약 해석과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층적인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 분쟁에서 실질적 해석자이자 설계자로 기능한 이 경험은, 기술과 규범을 가로지르는 복합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목록

- ▶ 자격증, 각종 공인시험, 연구 및 활동 결과물, 직장 등 사회활동 경력, 봉사활동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아래 목록에 기재해야 함(최대 10개)
- ▶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증빙서류의 수는 평가 대상이 아님

번호	서류명	일자*	발급기관명
1	재직증명서(김&장 법률사무소, 2024.08-현재)	2025.09.25	김앤장 법률사무소
2	수임제안서(생성형 AI 관련 저작권침해중지 및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Privileged & Confidential)	2025.02.05	김앤장 법률사무소
3	김앤장 법률사무소 Legal AI 간사단TF 메일	2025.09.25	본인 작성
4	AI R&D 쿼털리 + ITRC 외부 강연 발표자료	2025.09.25	본인 작성
5	경력증명서(주식회사 젠아이피, 2023.08-2024.04)	2024.07.24	주식회사 젠아이피
6	서울대 벤처빌더 데모데이 최우수상 증빙사진 및 기사	2023.11.23	서울대학교
7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NeurIPS, ACL) 논문 및 발표 자료	2022.06.13	본인 작성

8	인공지능기본법안 관련 『입법과 정책』 국회사무처 협업 논문	2024.12.31	국회입법조사처
9	연합인포맥스 리서치 아카데미아 은상 및 공모전 제출 자료	2021.12.23	연합인포맥스
10	관악구-서울대 SAM 멘토링 봉사활동 증빙서류 및 관악구 표창장	2021.08.2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관악구청장

\* 증빙서류의 일자는 발급일 또는 완료일을 기재